자승 대종사 부도탑 제막…“전법은 시대 사명”

봉은사, 12월 6일 법왕루서 2주기 다례재

400여 명 동참해 유지 계승 다짐
영상법문 시청·헌화·헌다로 추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서울 봉은사는 12월 6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를 마친 참석대중은 자승 대종사의 부도가 모셔진 부도전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맡아 한국불교 중흥에 헌신하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운동으로 포교·전법 활성화를 이끌었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 2주기를 맞아 스님의 뜻을 기리고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2월 6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추모는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가야만 할 새 길을 여는 다짐의 자리다. 남아 있는 후학들은 더 치열하게 수행하고 더욱 담대하게 쇄신해야 하며 널리 전법해야 한다”며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대종사의) 유훈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조계종도의 존재 의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다 함께 실천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즉석에서 게송을 읊으며 자승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자승 대종사는 함께한 20년의 매 순간 진실했고, 종단 발전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를 준비한 봉은사와 해봉문도회도 참석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주기에 (자승 대종사의) 부도탑과 비를 함께 모시려 했는데, 부도탑만 먼저 모시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해봉문도회 대표의장 탄원 스님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화합과 믿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유지를 실현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례재를 마친 참석대중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제막식을 거행했다. 부도탑 조성은 대종사의 49재 회향 이후인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주기 다례재에서 부도탑과 부도비 조성불사의 시작을 사부대중에게 알렸고, 올해 1월부터 모연이 추진됐다. 지난 11월까지 모연을 마무리한 뒤 12월 4일에 복장 봉안이 진행됐으며, 이날 2주기 다례재에 맞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증명으로 제막식을 열게 됐다.

부도탑은 부도전 좌측에 모셔졌으며, 가로 1m 95cm, 높이 4m 18cm 규모로 지대·하대·중대·상대·탑신·옥개·보륜·보개·보주석으로 구성됐다. 이 불사에는 130세대와 단체, 39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정성을 더했다.

봉은사는 부도탑 제막에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부도비를 조성해 봉안할 계획이다.

11년간 남북 담론 이끈 민추본 ‘월례강좌’ 마무리

2014년부터 정세 분석 공개강좌
12월 9일, 제91차 강의로 종료


마지막 월례강좌가 진행된 12월 9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그간의 소회를 나누고 있다.

지난 11년간 불교계에서 남북정세를 다루는 대표적 공개강좌로 자리해 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 월례강좌가 12월 9일 제91차 강의를 끝으로 대정정을 마무리했다.

남북관계 흐름에 맞춰 이어지던 강좌는 불교계의 평화·통일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때문에 강좌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추본은 최근 남북경색 장기화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 기획 사업으로 방향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전법회관 3층에서 진행된 마지막 강좌에서 참석자들은 강좌 종료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월례강좌 마지막 강연자로 마이크를 잡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교수는 “스스로에게도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 11년간 이 자리를 지켜 온 민추본의 꾸준함이 더 큰 가치”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 회원들 역시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균형 있게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육장이었다”, “단순한 정세 강의가 아니라 통일 감수성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었다”면서 ‘종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종료된 민추본 월례강좌는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내걸던 시기 첫발을 내디뎠다. 첫 강좌는 정창현 국민대 교수의 ‘남의 통일대박, 북의 중대제안’으로 장성택 숙청 이후의 북한 내부 변화에서부터 그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세 전반을 짚은 내용이었다.

강좌 시작 초반, 민추본에서 진행하는 불교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월례강좌는 학습 공동체의 틀을 마련했다. 강좌는 북한 정치·사회·문화, 남북교류, 동북아 안보 정세, 민간의 평화 활동, 불교계의 통일 기여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불교계에서 드물게 ‘정세 분석’이라는 전문 분야를 정기적으로 대중적으로 풀어낸 자리였다.

불교지도자과정과 더불어 북중 접경지역과 DMZ 일대 순례, 제주 4.3항쟁 평화 순례 등 민추본의 여러 교육·현장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불자들의 참여 폭을 넓힌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강좌를 듣고 순례에 참여하며 현장 체험과 공부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불교계에서 통일 문제를 매월 고민하는 장이 지속된 것은 사실 더 큰 성과다.

월례강좌는 종료되지만 민추본의 교육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월례강좌를 대체해 △정세 변화 시 긴급 좌담·토론회 △지역 중심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연수교육 강화 △대외 협력 포럼 확대 등 새로운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미애 민추본 행정관은 “월례강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1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실질적이고 민감한 정세 대응력을 키우고 회원도 유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기자상 시상식…대상엔 현대불교신문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 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이 대상인 선원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
최우수상 윤호섭·유화석 기자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의 ‘AI&미래불교’가 2025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 이하 불기협)는 12월 8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 불교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에게 대상인 선원빈상을 수여했다.

심사위원장인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는 심사평에서 ‘AI&미래불교’에 대해 “AI시대에 불교가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향후 우리 불교계가 전법과 포교 전략을 세우는 데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AI&미래불교’는 AI시대의 흐름에 맞춰 불교적 가치와 시대적 과제를 폭넓게 조명한 기획이다. 불교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웃 종교의 대응 사례를 분석했으며, AI를 활용해 손쉽게 양산되는 상업적·비불교적 콘텐츠의 범람 문제도 짚어 냈다.

본지 신중일 부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올바르게 불교와 접목·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AI시대에 불교가 헤쳐 나가야 할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고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교 언론인은 팔정도에 따라 올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좋은 기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기획·해설부문 최우수상은 윤호섭 BTN불교TV 기자가, 취재·보도부문 최우수상은 불교계 종교교과서 부재와 편찬 필요성을 지적한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불기협 회원 자녀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인 혜총장학금은 조용주 금강신문 기자 가족이 선정됐다.

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동안거 포살법회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불기 2569년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행·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조계종 직할교구 스님들이 포살법회로 그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 준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첫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250여 직할교구 스님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초발심을 되새겼다. 글=김내영 기자·사진=송정인 수습기자

